

# NittoDenko, 편광판 평택공장 건설

## 2007년까지 100억엔 투자 LCD 부품공장 건설 ... 핵심기술 공급도

경기도가 TFT-LCD용 편광판 필름 부문에서 세계 1위의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일본 니토덴코(日東電工)와 100억엔 상당의 투자합의서(MOA)에 서명했다.

손학규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경기도의 <LCD 첨단기업 유치에 위한 일본투자단>은 2월18일 오사카 니토덴코 본사를 방문해 다케모토 마사미치(60)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합의서를 체결했다.

다케모토 대표이사는 2007년까지 100억엔을 들여 평택 현곡외국인투자공단 7만3200평방미터 부지에 공장을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니토덴코는 한국에 진출해 있는 한국니토옵티칼(대표 김홍인)을 통해 삼성전자의 충남 당정공장과 LG필립스의 파주공장 사이의 평택 현곡공단에 최첨단 부품공장을 건설하고 7세대 LCD 부품을 삼성과 LG필립스에 공급하게 된다.

또 계열기업인 교신상사를 통해 LCD 편광판을 LG필립스에 공급할 예정이다.

니토덴코가 공장을 가동하게 되면 일본의 7세대 최첨단 LCD 부품공장 대부분이 평택 현곡 외국인단지에 입주하게 돼 경기도 파주·평택공단과 충남 당정공단으로 연결되는 LCD 첨단기술벨트가 형성된다.

한편, 한국니토옵티칼이 생산하는 부품은 세계 1위의 핵심기술로 삼성전자와 LG필립스에 모두 납품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Chemical Journal 2004/02/20>